

## 민주주의의 저편으로

### : 「두려움 없는 발언과 저항」에 대한 코멘트

히로세 준(廣瀨純)

당신의 이번 텍스트는 파르레시아(모든 것을 말하기)의 퀴니코스주의적 이 105  
해에 대한 푸코에 의한 연구에 비추어, 당신의 어셈블리 이론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통해, 어셈블리는 새롭게, 집단적 파르레시아, 더 정확  
하게는 집단적이고 신체적인 진리진술(진리를 말하기)로서 재정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신의 텍스트에 대해 저로서는 세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  
다.

#### 집단적 진리 진술

이번 텍스트에서 당신은 파르레시아를 그 개인주의적 한계로부터 해방시  
키려고 시도합니다. 제가 하는 첫 번째 지적은 이 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푸코는 디오게네스 등, 헬레니즘 시기 및 로마 시대의 퀴니코스파에  
대해 논할 때에는 사실상 개인 파르레시아스트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것은 푸코가 파르레시아를 개인적 행동action으로 정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푸코는 그가 ‘퀴니코스주의의 후  
손’이라고 부르는 것을 근대 유럽의 혁명적 운동들에서 찾아냅니다만, 거기  
에서 ‘후손’으로 간주되는 것은 집단 파르레시아스트이며, 개인 파르레시아  
스트가 아닙니다. 콜레주드프랑스에서의 1983년부터 84년에 걸친 강의 『진  
실의 용기(진리에의 용기)』로부터 해당 대목을 인용합니다.

퀴니코스주의, 즉 진리의 돌발적이고 폭력적인 스캔들적인 표출로서  
의 **삶의 양식**이라는 생각은 19세기 전체를 통해 혁명적 실천의 일부  
를… 이루었습니다. 혁명적 삶에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있었습

니다. 비밀 결사성, 제도적 조직화, 그리고 삶에 의한 증언(삶 그 자체에 의한 참된 삶에 대한 증언)입니다. …혁명적 생활 스타일이라는 문제는 좌익주의(leftisme)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속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좌익주의가 부상하는 것은 항상 당파활동(militantisme)이지, 조직화의 차원이 아니라, 비밀 결사성 또는 생활 스타일의 차원에 입각하기를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스캔들적인 **삶의 형식** 그 자체에 의해 비밀 결사성이 표출되고 가시화된다는 역설에 입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허용하기 어려운 삶의 스캔들적 표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삶의 형식**의 일체가 금지되어 버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프랑스 공산당의 당파활동에 있어서, 생활 스타일이라는 테마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를 계속합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퇴폐 또는 좌익주의적 광기라고 간주되는 것에 저항하는 형태로 …; 통념화된 가치, 관습에 더할 나위 없이 충실하게 따른 행동 … 같은 모든 것을 자신의 생활 스타일에 도입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반전된 명령이 내뱉어지고 있는 것입니다.<sup>1)</sup>

“스캔들적인 삶의 형식 그 자체에 의해 비밀 결사성이 가시화된다”는 것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어셈블리, 진리의 집단적 신체화로서의 어셈블리에도 해당되는 ‘역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셈블리를 중시하는 것도, 여기에서 푸코가 1980년대의 프랑스공산당에 대해 지적하는 그것과는 다른 좌익의 존재방식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푸코가, 퀴니코스주의적 파르레시아 행위, 즉 “삶 그 자체에 의한 참된 삶에 대한 증언”(신체적 진리진술)을 협동행위의 수

1) Michel Foucault, *Le Courage de la vérité, Cours au Collège de France, 1983-1984*, Gallimard/Seuil, 2009, pp.170-171.

준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운동의 그 구성원의 한사람 한사람의 개별적인 실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각의 운동의 그 전체에 의한 집단적 실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상 인용은 삼가지만 『진리의 용기』의 같은 대목에서 푸코는 진리의 그런 집단적 신체화를 중세 기독교에서의 금욕주의 운동들에서도 찾아냅니다. 푸코에게서도, 개인성은 파르레시아의 퀴니코스주의적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이상이 당신의 텍스트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 점입니다.

### 상호 용기 부여(inter-encouragement)

두 번째 점은 어셈블리가 집단 파르레시아스트로서 형성될 때의 그 내적 원리라는 문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의 텍스트에서도, 저서 『어셈블리』에서도, 어셈블리는 신체들끼리의 ‘상호의존’으로서, 신체들끼리의 상호 지지로서 형성된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퀴니코스주의에 대한 푸코의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파르레시아적 집합에 있어서의 별종의 신체 간 결합, ‘상호 용기 부여’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결합입니다. 『진리의 용기』에서는 107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다른 삶이라고 진술하는 것에 … 퀴니코스주의의 원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 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으며, 제 삶의 이 다름성(이타성)에 의해서, 당신이 찾는 것은 당신이 그것을 찾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 … 이런 의미에서는 에픽테토스는 단순히 개인들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개혁하는 것으로서 **삶의 형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바로 그런 까닭에, 하나의 다른 세계 전체가 부상되어야 한다고, 혹은 적어도 지평이 되어야 한다고, 퀴니코스주의적 실천의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sup>2)</sup>

당신이 이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어셈블리도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른 세계 전체”의 순간의 출현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상호의존은 국지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역적(global)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바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회의 구성입니다. 이 점을 확인한 후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푸코가 신체 사이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 상호의존이 아니라 상호용기부여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하나의 신체가 파르레시아 행위를 이룰 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신체가 보여주는 용기는, 다른 신체에도 용기를 주고, 똑같은 파르레시아 행위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용기”의 전세계적인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번 텍스트에서는 집단적 혹은 복수적 용기는 신체 간의 상호의존으로부터 부상하는 것, 귀결하는 것, 혹은 그것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코는 용기 그 자체를 어셈블리적 신체 결합(신체의 어셈블리)의 내적 구성 원리로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용기 있는 신체는 바로 그 용기에 의해서, 다른 신체를, 그 자신도 용기 있는 것이 되도록 인도합니다. 상호의존에 대한 당신의 논의는 물론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파르레시아적 집합으로서의 어셈블리의 형성과정에서, 상호의존은 상호용기부여와 어디까지나 쌍을 이루며 연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리를 살아가는 신체는, 다른 신체로부터의 버팀목(지지)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신체를 촉발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당신이 말씀하시는 상호의존과 푸코에게서 읽을 수 있는 상호용기부여를 어셈블리의 이중적 구성 원리로 간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두 번째 지적 혹은 제안입니다.

---

2) Ibid., pp.287-288.

## 민주주의의 저편으로

제 마지막 지적은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됩니다. 이번의 텍스트에서 당신은 ‘민주주의’를 ‘평등성에 입각한 통치양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어셈블리』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의되는 민주주의가, 기존의 차분(差分)적differential 또는 차별적인discriminal 권력형태들에 대치되고 있습니다. 제 물음은 그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차별적 권력형태인 것이냐, 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차별적 세계는 전면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세계인 것이냐는 것입니다.

108

제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본에서의 미군기지 문제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미일안보협정 하에서 일본에 배치된 미군기지 가운데 약75%가 지리적으로는 일본 영토의 1%에 해당되는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은 주로 일본에서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류큐민족에 의해 구성됩니다. 무엇이 이런 집중을 낳고 있는가? 도대체 어떠한 권력형태가 류큐민족에게 그런 집중을 강제하고 있는가? 민주주의입니다. 어떤 민주주의도 자기 자신 안에 일종의 쓰레기통을 아울러 갖지 않는 한 전혀 기능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해결 불능의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해결한다는 것을 통해 비로소 기능합니다. 미군기지 문제는 일본에서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런 해결 불능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누구 하나 미군기지가 자신의 뒷마당에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 불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자신 민주적인 것이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의 민주주의는 류큐민족 혹은 그들이 사는 오키나와를 인종차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내적 쓰레기통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시작부터, 즉 고대 아테네부터, 줄곧 차별적 권력형태이기를 계속해온 것이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디시피 아테네 민주주의는 노예나 여성이라는 쓰레기통을 자신 속에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민주주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바로 민주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만일 노예나 여성에

게 시민권을 인정했다면, 그것은 그들을 대신할 다른 쓰레기통을 찾아내는 한에서였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설령 그것이 ‘급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실현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존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저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의 텍스트에서 당신은 좌익의 파르레시아적 집합을 우익의 그것(헤이트스피치 등)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의 어려움을 언급합니다. 민주주의의 권역 안에 머무는 한, 그 분할선은 항상 애매한 것에 머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분할선은 민주주의와 그 너머 사이에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마지막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